東亞日報

二十八日夕刊 今日四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趙宜淳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新聞價 / 廣告料

盟休問題座談會

大衆懲學、師弟情誼、學生保健問題가中心

一

昨二十七日午後四時부터 밤十時까지 本社主催로 市內中等學校、專門學校代表者諸氏를 招待하야 學生盟休問題를 中心으로한 座談會를 開催하엿다。敎育家諸氏는 本社의 微衷에 共鳴하야 多數出席하엿고 또 前後五時間餘에 亘하야 가장 眞摯하고 熱誠잇는 態度로 所懷를 吐露하엿다。本社는 이에 對하야 出席하신 敎育家諸氏에게 깊이 感謝함을 表한다。

二

대저 學生盟休問題는 오늘 朝鮮의 가장 重大한 問題中에 하나다。그것이 民族의 將來요 希望인 子女의 一生浮沈에 關한것이만큼 그 重大性과 關心의 程度 자못 深刻하다。京鄕을 勿論하고 各地에서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盟休가 接踵하야 最近에 이르러서는 一月에 二三件이 아니 일어나는 때가 없고 따라서는 大衆의 退學處分이 되고 警察權의 發動이 되어 多數한 어린 男女學生이 留置場으로 刑務所로 轉轉하게 되는것은 實로 痛嘆할 일이 아닐수 없다。本社가 學生盟休問題로 敎育家座談會를 開催한것도 實로 이를 爲함이다。

三

우리는 昨日의 座談會에서 무슨 決定的인 解決을 얻은것은 아니나 이것이 敎育家諸氏와 및 一般社會에 學生父兄에까지도 不少한 刺激이 되고 아울러 思考와 討論의 問題를 提供하엿다고 믿는다。

本社에서 敎育家座談會에 提出한 問題는

一、盟休學生處分問題
　懲罰을 避하는 方法。
二、盟休事件이 警察事件이 아니되는 方策。
三、師弟情誼敎養如何。
四、同窓會自治問題。
五、學生保健問題。
　寄宿舍、夏休、運動機會均等。
六、修學旅行問題。
七、課外讀物問題。
八、學用品問題。
九、學生社交、娛樂問題。
一〇、學生校外訓練問題。

等十條엿다。

以上十條中에 第一中心이오 重要한것이 第一條인 懲罰을 避하고 盟休學生을 處分하는 問題인것은 말할것도 없다。그러나 이 問題 하나만으로 約一時間半을 끌엇다。

이에 對하야 懲罰은 不得已하다는 說과, 懲罰을 받을 處地에 잇는 學生을 各其父兄에게 委託하야 曉諭케하거나 自進退學케 하는 方法으로 大衆懲罰을 避할수잇다는 說이 나와서 一時 激論이 되고 [illegible] 不祥事를 일마즘 [illegible] 에까지 遂하엿던것은 注目할 일이엇다。그리고 大勢는 大衆懲罰이 [illegible] 이 盟休鎭靜에 아모效果가 [illegible] 一致하는듯 하엿다。

다음에 가장 討論의 中心이 된것은 師弟情誼問題와 學生保健問題엿다。今日 朝鮮學生間에는 師弟의 情誼가 甚히 稀薄하다는 事實을 一致肯定하엿고 그 重要原因이 普通學校時代에 言語不通關係로 師生間에 情誼가 生하지못한데 잇다는것을 一座가 肯定한것은 注目하는 일이엇다。

師弟의 情誼를 敎養케할 具體的方法에 對하야는 師生間의 人的接近이 가장 重要한 일이라고 아니할수없다。

四

朝鮮學生의 健康에 對하야는 滿場一致로 甚히 憂慮할 狀態에 잇는것을 認定하고 오늘날 學生의 下宿의 非衛生的인것이 學生保健上 大缺陷이라 하야 學校가 또는 社會篤志家가 衛生的이오 道德的인 寄宿舍를 提供하는것이 緊要하다고 力說되고 또 學生의 營養問題에 論及하야 [illegible] 學生保健에 [illegible]

五

다음에 近來 學生盟休의 要求條件에 恒常重要한 一項目을 끼이는 同窓會自治問題에 對하야 延禧專門、세브란스醫專、專門學校와 [illegible] 絶對自治를 준다는것을 出席한 各其代表者로붙어 말하엿으나 中等學校代表者들은 [illegible] 重大問題인가에 注意를 喚起함이 잇엇다。

[illegible] 問題 이기때문이 잇다。그러고 學生盟休事件의 根本對策에 [illegible] 各學校當局者의 權限內에 잇는것은 아모쪼록 學生들과 恩情으로써 接觸하야 個人的情分을 先生이 學生의 親友가 되는것이라함에 一致할뿐이엇다。

이것 만으로 우리의 昨日의 會合이 朝鮮敎育界에 記念할만한 [illegible] 決코 效果없이 끝나지 아니한것을 믿는다。

京都第十六師團을 南朝鮮에 移駐決定

廿七日陸軍三長官會議에서

師團司令部는 大田

【東京廿七日午後八時發電通至急報】二十七日의 陸軍三長官會議의 結果 朝鮮에 日本內地의 一個師團을 移駐하기로 決定하얏다 또 臺灣에는 步兵一個聯隊가량을 增置할작정이다

【東京廿七日午後九時發電通至急報】朝鮮에 移駐되는 日本內地師團은 京都第十六師團으로 하기로 方針은 決定하얏다

【東京廿七日午後十時二分發電通至急報】日本內地에서 朝鮮에 移駐할 師團의 衛戍地는 極秘에 附하고잇스나 師團司令部一個及步兵一個聯隊는 大田에 步兵一個聯隊는 木浦方面에 置하리라고 觀察된다 또한 右와 如히 朝鮮에 一個師團이 移駐된 結果 第十九(羅南)第二十(龍山)兩師團의 主力을 國境方面에 集中하기로 되엇다 알하서 朝鮮軍의 配備는 相當히 變更을 볼 豫定이며 또한 師團移駐에 關한 費用은 朝鮮總督府에서도 負擔하도록 交涉하기로 되어나

[illegible] 을 常置한다 師團司令部及現在의 步兵第十九旅團司令部를 大田에 又는 步兵第三十旅團司令部를 大邱에 옮기리라고 豫想된다 그리고 이 完成年度는 今後三個年을 要할것이다 또한 今後行할 軍事參議官會議에서 右移駐問題가 正式으로 決定한 境遇에는 大阪第四師團管下의 和歌山步兵旅團司令部及某師團特科隊의 一部를 京都에 移駐할것으로 보인다

一、臺灣軍의 增加充實에 關하야는 日本內地의 步兵一個聯隊를 나누워서 이것을 [illegible] 에 移駐할것
一、火力을 主力으로하는 部隊를 增設하는 同時에 이것을 各師團에 配備케할것
一、關東軍의 各種機關의 配置를 適當히 變更할
一、飛行聯隊를 增設하야 臺灣朝鮮北海道或은 千島方面又는 [illegible] 에 設置할
一、防空機關部隊를 新設할
一、騎兵을 半減할
一、各種新兵器의 充實을 行할

朝鮮에 師團移駐는

三個年完成計劃

移駐費는 總督府에서 負擔

宇垣新總督도 諒解

【東京廿七日發聯合】軍制改革 移駐開始로부터 終了까지의 年限으로 朝鮮總督府에 對하야 交涉案을 決定할 最後의 陸軍三長官會議는 廿七日午後二時부터 陸相官邸에서 開會하얏다 南、金谷、武藤三大將杉山次官、二宮參謀次長、林敎育總監部本部長、小磯軍務局長의 七首腦者가 參集하고 廿四日會議에서 再研究하기로되엇다 朝鮮軍增兵에 關한 臨時費完成年度及年度割等에 對하야 小磯軍務局長으로부터 詳細한 報告가 잇섯고 朝鮮에 日本內地師團을 移駐하는것은 莫大한 臨時費用을 要하는 同時에 經常費에 잇서서도 日本內地師團(四百萬圓)보다 多額의 經常費(六百萬圓)를 要할것으로 이것을 移駐코저 非常히 苦心하얏는데 此의 完成年度는 (大臣의) 動員計劃으로 드듸여 京都第十六師團을 移駐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얏다 그리고 第十六師團司令部並現步兵第十九旅團司令部는 朝鮮大田에 步兵第卅旅團司令部는 大邱에 移駐할 方針이다

【東京廿七日發電通】鐵相病은 胃癌【東京廿八日發電通】帝大鹽田外科에 入院中인 江木鐵相은 二十七日初期胃癌의 診斷을 받고 兩三日中에 鹽田博士執刀下에 手術을 行하게 되엇다 그 結果入院이 오래되겟음으로 이 交涉은 圓滿히 解決되엇다 또 議會의 增加요구로 鐵相은 一時若槻首相이 兼任할 模樣이다

師團內部縮少

編成을 改變

兵員約二萬、馬匹若干減少

軍革案의 重要事項

【東京廿八日發電通】旣報와 如히 廿七日陸軍三長官會議에서 決定한 軍制改革案의 重要事項은 如左하다

一、師團內部의 縮少에 伴하야 兵員約二萬名、馬匹若干等及此에 伴한 將校若干名을 減少하고 常備十七箇師團中의 二箇師團의 步兵聯隊를 現行三個大隊制로 一箇大隊는 兵卒敎育에 當하야 朝鮮南部方面에 移駐하야 것이 [illegible]

一、從來의 劃一主義를 打破하야 戰略單位인 師團數는 減少하지아니하고 師團內部의 編成을 改變함

一、從來의 所謂一等師團二等師團의 區別을 하야 重師團輕師團의 區別을 하야 編成할것

一、人員減少는 全國各師團內의 一二六中隊中에서 各其十名以內의 兵員을 減少할것

一、編成의 改變에 依하야 捻出할 수있는 經費는 이것을 全部新裝備費의 充實에 充當할것

一、朝鮮軍의 增加充實에 關하야는 京都第十六師團을 朝鮮에 移駐하야 것이

支拂猶豫實施期前

戰債會議를 召集?

海牙賠償協定에 影響잇슴으로

【東京廿七日發電通】후버大統領提案의 모라토리움案이 無條件年賦金에도 미치는 關係上 헤이그 賠償協定에 影響이 잇슴으로 米政府는 七月一日의 實施期前에 巴里或은 歐洲의 某處에서 對米戰債를 有한 各國及 賠償協定關係國의 財政專門家會議를 召集하고 休日案實施에 關한 手續上의 細目을 決定할 意向이다 그런데 日本政府에서는 右提議잇는때로 代表를 參加시킬 意向이라는데 在倫敦松山商務參事官이 出席하리라고 보인다

獨賠償條約並協定

【東京二十七日發電通】獨逸賠償條約은 七月三日의 定例閣議에서 決定하고 卽時樞府에 御諮詢手續을 執하게되엇다 同條約並協定으로되어 잇다

一、聯合國對獨逸賠償協定(加盟十七個國)
一、債權國間의 協定(加盟十六個國)
一、國際決濟銀行에 關한 條約(瑞西國及日、英、獨、佛、白、伊間條約)

對米回答承認

佛下院徹宵討議結果

【巴里廿七日發聯合】佛國下院에 對한 佛國政府代案의 討議는 후버모라토리움案(徹宵로 行하야 一時는 下院의 議論이 [illegible] 한바 政府信任案을 可決하얏다

【巴里二十七日發電通】佛下院은 二十六日夜以來今早曉에 至하도록 佛政府의 對米回答에 對하야 議論을 繼行한 後 도되어 三百八十六票對百八十九票로 政府를 信任하고 午前六時三十分散會하얏다 이것으로서 對米回答은 承認하게되엇다

印度政府도 受諾

【사무라 廿六日發聯合】印度政府는 本日英國藏相 [illegible] 氏의 英本國에 對한 債務 [illegible]

米佛妥協交涉

廿七日부터 開始

佛首相과 米藏相 會見

【巴里廿六日發聯合】후ー버ー大統領提案의 모라토리움에 對한 米佛의 妥協交涉은 廿七日부터 開始되엇다

【巴里廿七日發聯合】후버ー大統領提案의 모라토리움案에 關하야 米佛兩國間에 妥協點을 發見하랴고 目下巴里에 滯在中의 米藏相멜론氏와의 交涉은 今日午後三時부터 프라스佛首相의 [illegible] 內內務省에서 開始한 會議는 約二時間에 亘하얏는데 廿九日에도 續行될 豫定이라한다 나 昨夜부터 今曉까지 徹宵하야 續行한 하랄首相은 今朝七時에 저우 就寢하지아니하얏다 한다 如何間 一兩日中에 무슨 一致點에 達하도록 모든 努力을 하리라고 보인다

日本의 不況

昨年一年間

失業職工=五十七萬

解雇工場=거의四萬

【東京電】內務省社會局調査 昭和五年의 工場勞働者移動表(工場法適用工場中 常時職工五十名以上을 使用한 工場)에 依하면 解雇한 工場數는 三萬九千九百七十에 達하야 一個月平均 實로 三千三百三十工場이 職工을 解雇하고잇다 解雇職工數를 各月別로 示하면

一月	七〇、七八九	
二月	三九、〇八七	
三月	三九、五七九	
四月	四〇、五七九	
五月	五〇、八六九	
六月	四一、七九二	
七月	四二、五九二	
八月	四二、二二八	
九月	三六、九二八	
十月	三三、六七九	
十一月	二九、四九八	
十二月	一〇一、六六二	
合計	五六九、四三一	

工場

勞働者로서 失業한者는 五十六萬九千四百卅三人인데 그中에 十六萬二百四十八人、女四十萬九千一百八十四人이다 女工의 解雇數가 가장 만흔 製絲業의 異常한 不振을 立證하야 新織工入換期의 十二月에는 實로 七萬九千四百四十九人이 解雇되엇스며 業務停止又는 休止에 依하야 全職工을 解雇한 工場數는 十二月만 보드라도 岐阜의 四十三、群馬의 四十을 筆頭로 百六十工場을 헤아리게 되엇다

解雇

職工만 하드라도 一萬五千二百卅五人에 達하야 一個月平均 四萬七千四百五十三人의 男工、女工이 失職하고 잇다 一方 雇入方面에는 工場數 三萬二千三百五十三이며 就職한 職工數는 男工十七萬九千六百卅九人、女工四十二萬五千五百卅八人、合計五十一萬五千百五十六萬九千餘人에 解雇職工數에 比較하면 五萬四千二百七十四人의 失業工場勞働者가 出하야 昨年의 日本財界의 不況이 如何히 深刻한 것을 想像할수잇다

張作相軍隊

山海關出動

奉天선 新兵募集

【奉天廿七日發電通】奉天軍의 第二次關內出兵에 伴하야 山海關秦皇島方面의 警備不完全함으로 張作相氏는 吉林、長春駐屯兵一大隊를 附屬하야 同方面에 出動케하기로되어 總續移動中이다 또한 大部隊의 奉軍이 關內에 進出하기 爲문에 奉大省에서는 兵力不足을 告하야 奉天城에서도 新兵을 募集하고 잇다

日本警官射擊

事件無事解決

【奉天廿七日發電通】大石橋中國公安隊와 日本警官射擊事件은 林總領事가 滅省政府主席에게 交涉中이든바 昨日

一、大石橋中國官憲이 本領事에 謝罪할것
二、事件의 首謀者인 公安隊長을 免職할것
三、事件關係者를 各其處罰할것
四、將來 다시 同樣의 事件이 發生치안토록 保障할것 等을 中國側에 提出하야 無事히 解決하얏다

印度政府는 賠償金受取分二十三萬九千磅(約二百三十九萬圓)의 缺損을 매고 豫算中에서 八十三萬六千磅(約八百三十六萬圓)이 나오게된다고한다

東亞平和協會

創立總會

【東京二十七日發電通】東亞의 諸問題를 交際協調의 見地에서 解決하고자하는 東亞平和協會의 創立總會는 二十七日午後一時부터 東洋軒에서 開會하얏다 他諸氏가 出席하고 意見交換의 結果 日中有志의 懇談會를 開催하고 兩國間의 經濟問題에 對하야 懇談하는 意見交換을 하는 것이 急務라고하는 意見에 一致하고 不遠間 二、三의 會員을 派遣하야 中國側에 交涉하기로 하얏다

國公大養總裁訪問

【東京二十七日發聯合】西園寺公은 二十七日 午後二時四十五分에 四谷의 總裁邸로 犬養總裁를 訪問하고 犬養總裁가 病床에 잇스로 訪問하얏슴에 對하야 答禮로 訪問한 것이라 하얏스며 [illegible] 時局問題 政友會의 最近의 情勢에 關하야 雜談會見 一時間餘에 亘하고 三時五十分에 歸去하얏다

辭令

【東京廿六日發電通】
朝鮮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敎諭 阿部 エク
道敎諭(七等) 趙彰顯
道技師 宮川 穗波

減俸과 恩給關係

經過規定大綱

行整委員會에서 決定

【東京廿七日發電通】二十七日의 行政整理準備委員會는 減俸과 恩給의 關係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如左히 經過規定의 大綱을 決定하얏다

一、武官은 俸給에 關係업시 恩給額이 決定되어잇스나 文官은 俸給과 恩給의 關係가 密接的으로 關聯되고잇슴으로 文官에 限하야 減俸이 업는것으로하고 退給하도록 할것
一、恩給改正法施行後一年以內에 退官한者는 減俸업는것으로하고 恩給遡及法을 適用할것(文武官共通)

[illegible] 報告請解를 求할豫定이다

人事往來

▲森岡前警務局長은 家族을 거느리고 七月一日朝에 退京渡東의 豫定

橫說竪說

□ 大衆鬪爭이 盟休鎭靜에 何等의 効果 업다는데 意見이 一致。우선 方今休學中의 各校부터 實施함이 若何。

□ 一師團이 日本에서 朝鮮에 移駐。一種의 軍縮法。

□ 一個人 失言으로 夜學에 閉鎖命令。 같은 原因에 같지한 結果。어찌 非數學的인 因果律。

任靜岡縣警察部長 [illegible]
任京都府警察部長
任京都府內務部長
任神奈川縣警察部長 林田
任福岡縣警察部長
任山梨縣警察部長 佐藤正俊
任神奈川縣警察部長
任福岡縣警察部長 菊池秀雄
休職千葉縣內務 [illegible]
任山梨縣警 [illegible] 長

任和歌山縣內務部長 中村恒三郎
休職大阪縣警察部長
任靜岡縣警察部長
任警視廳官房主事
任警視廳警務部長 古川靜夫
任和歌山縣內務部長 多久安信
任香川縣知事 坪井勸吉
任高知縣知事 高橋雄豺
任茨城縣知事 田中無事生
任朝鮮總督府警務局長 牛島省三
任高知縣知事 福田虎亀
任群馬縣知事 平田紀一
任山梨縣知事 堀田鼎
任千葉縣知事 石田馨
任內務省神社局長
任京都府內務部長

【東京二十七日發聯合】石田千葉縣知事의 內務省神社局長及朝鮮總督府警務局長의 移動은 二十七日의 閣議에서 如左히 決定發表되엇다

依願免本官
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敎諭 阿部 エク
任官敍特遇(各通)
朝鮮總督府敎諭師杉山 [illegible]
任道立醫院醫官(七等) 遠藤銀藏
九州帝國大學助敎授 川崎祐
朝鮮總督府逓信事務官 川西隆三
【東京廿七日發電通】
依願免本官
朝鮮簡易生命保險審査會 [illegible]
朝鮮總督府逓信事務官 白井源平
朝鮮公立高普校敎諭 山本虎之助
同 竹內喜八
同 齋藤 [illegible]

當選謝禮

今般面議員選擧에 際하야 有權者諸氏의 深厚하신 愛護를 蒙하와 當選의 榮을 得하얏삽기 玆에 紙上으로 謝意를 表하나이다

唐津郡唐津面

石門面 / 高大面 (當選者 名單)

職業 (廣告)

일거리 (廣告)

折脚式鐵製寢臺 各種寢臺附圖 各種型貌具備
製造販賣所 京城府 黃錫孝
(特約販賣店募集)

團成社 電話光九五九 (映畫廣告)
戀愛博士 / 아아靑春 / 農村의 一景

東京藥院 / 東京藥院
피부병퇴치
데ー무水
◇殺菌作用으로 ◇消毒作用으로 ◇收斂作用으로 ◇滑澤作用으로
發賣元 東京市 / 大阪市

松井病院 眼科、內科、外科、產科、性病科
東亞日報社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

먹고자면 잇슨날아침이면 효력이현저한 정제민당(松井濟民堂)제나이세루
세계적 큰발견 나이세루 松井製

朝鮮代理店 (各地)

教育界重鎭을招請 學生盟休對策討議
本社主催로十六校校長會合
昨日、座談會開催

최근 경향을 막론하고 학원의 불상사로 동맹휴학(同盟休學)이 연일사이가 업시일어난다 이는 한학교에국한한문제가 아니라 전교육계에 중대문제이며 또한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의 큰문제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이러한불상사를 어떠케하면 일지안토록하며 설사 불상사가 일어낫다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할수잇슬서를 토의연구하기 위하야지난二十七일 오후四시 본사회의실에 시내 각전문학교와 남녀중등학교 교장을 초대하야 이에대한 의견과 방침을 좌담형식으로토의하게되엇다

금번이 각학교 교장좌담회에 출석하신분은 학교측에서 열■분이요 사회측에서 두분그이는 본사측이며 기타는본사기자와 대판매일신문기자들이 참석하게되엇는데 금번회합이야 말로 과연사계의 중진들일뿐아니라 직접 교무당국에서맹휴사건을 실제처험도 해본 그실 사정을 조선의 현실에빗최어신중하고도 미듬성잇게 모든사실그대로 버어노코 토의연구하얏스니만큼 사회적으로보아 중대성을 씌엇다하지안흘수업스며 아울러 이좌담의 결론이 필연코현조선경향각학교의 맹휴방지또는 해결의 표준이될것을밋는바이다

多數犧牲은不可 處分은愼重히
동창회는자치여하도무방
討議內容의一端

본사에서 맹휴사건에대한 다음가튼 의제일반(議題一班)의 신중한 토의가 잇섯는데 그에한 긔록은 명일 본지면을 통하야 보도하려한다 이제문제의일단을위선보여드리면

一、맹휴학생처분문제

맹휴학생처분에 대하야 종래의 경향을보면 다량적(多數的)희생자를내어 맹휴을방지할려고 하얏다 그러나이는오히려학생들의반동적반항심을 일으키여 극단의폭동행동행위(暴動行爲)에까지 이르키게된다 그럼으로 출학생을적게내도록하며 또한 출학생을 내기전에 그학부형을 불러상의할것등이며

二、맹휴사건이 경찰사건이 아니되는 방책

三、사제정의 돈독책여하에대하야서도 상당히 문제가되엇는데 어떤분은 정의돈독의 불가능을 말하고어떤분은 인격적 감화 어떤분은 학생과 선생이 자조맛나는 과회를 주자는등 각학교의 실례를들어 쫑론하얏다

四、동창회 자치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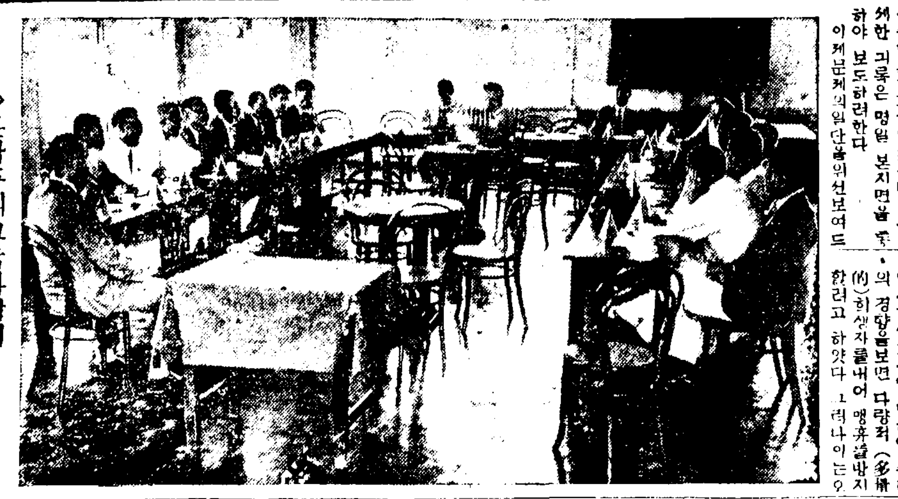
동창회 자치문제는 전문(專門)정도의학교는 대개림의의 자유를주자고하얏고 중등정도 학교에서는 각부문에 고문만을 선생이해주고 내청에잇서서는 역시학생에게 자유를주자는것이엇다 어외에 보건문제、수학려행、과외 독물、오락문제등이 상당히 론의되엇는데 이에대하야는 래일부터순서를딸하긔재하려한다

議題一班

一、盟休學生處分問題 黜學을避하는方途
二、盟休事件이 警察事件아니되는方策
三、師弟情誼敦篤策如何
四、同窓會自治問題 寄宿舍、夏休、運動機會均等
五、學生保健問題
六、修學旅行問題 費用、距離、有効方法等
七、科外讀物問題 優良圖書
八、學用品劃一問題 費用、指定商、全員
九、學生社交、娛樂問題 演劇、映畵、野談、
十、學生校外訓練問題

出席者氏名 (無順)

梨花女學校長 金美理士
延禧專門學監兼梨花專門理事 兪億兼
養正高普校長 安鍾元
世富蘭偲醫專副校長 吳兢善
中央專門校長 金映遂
普成高普校長 李昆惺
京城女高普代表 張膺震
中東學校長 崔奎東
徽文高普校長 李潤柱
中央保育校長 朴熙道
貞信女學校代表 崔三悅
協成實業校長 金麗植
協成實業 李大觀
進明女高普代表 南相贊
培花女高代表 朱基瑢
基督靑年學館長 洪秉德
社會側 金炳魯
社會側 朱耀燮
本社 宋鎭禹 李光洙 朱耀翰 成儁勳 林炳哲 崔容煥


◇본사주최교육좌담회

堤防工事中 四百名盟罷
십장이 인부를 구타햇다고
大同江新里工事場

【평양】대동강제방공사(大同江堤防工事) 신리(新里)공사장 인부四백여명은 지난 二十六일 오전중에 파업을하얏다는데 그원인을 듯건데 동공사장십장리계린(李■麟)이가 인부김광순(金光淳)을 구타한것으로 인하야 시비가 저렬하다가 결국은 임금에서 십장료금으로 二전씩감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또는 의무저금으로 임금의 一할씩제하는것은 저금중서를 교부하라는등의 요구조건을 들어 그와가티파업한것이라고한다

水死者慰靈祭

해마다 여름철이되면 화락의 장소도되지만 파실로 혹은자괴가 자괴목숨을 한강물에던저언는이가 소화三년이래 익사자가 二三백十五명、잇살자 二백九十四명합계 六백九명이며 자살미수가 五백十五명에 달한다

룡산긔자단에서는 해마다이들의 수사자위령제(水死者慰靈祭)를 열어오든바 금년제九회 위령제를 금二十七일 오후一시부터 한강인도교 아래에서개최하고 안등경성부윤이하 연강일대의 유지백여명 렬석으로정숙한가운데 열려안등 부윤의조사(弔詞)가 잇고 유족대표로김의순(金義淳)씨의 수향이 잇슨후 폐회하얏다

五、卅事件 免訴四氏出獄
모다 옥고에 시달린 몸으로
南山旅館에滯留中

간도 五卅 폭동사건으로二十七일 예심종결과 동시에 면소된 알에의 四씨는 동일 오후六시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와 시내인사동(仁寺洞) 남산려관(南山旅館)에 투숙중이다

동씨들은 二개년동안이나 철창에 미결로잇서서 신체가 파리하게된것은 물론이나 그러케 크다란 병고는업는모양이며 수일후 모다고향으로 돌아간다고한다

사진우로부터▲金弘奎▲鄭昌松▲辛仁煥▲張南旭

間島五、卅事件
豫審決定書內容【一】

咸鏡北道慶興郡 無職朴一勳、韓峰事、 金 棒(三○)
咸鏡北道茂山郡 無職 蘇聖主(二四)
咸鏡北道明川郡 漢方醫 黃珍淵(三五)
咸鏡北道鏡城郡 無職 金景玉事 崔燦益(三二)
咸鏡北道富寧郡 農業 姜寬豊(二八)
咸鏡北道明川郡 農業、大東溝村長、頭道溝民會長 金夏益(三○)
咸鏡北道富寧郡 私立龍山學校教員張起豪事 張龍石(二四)
咸鏡北道明川郡 農業 車輪伯(三五)
咸鏡北道明川郡 農業 吳二男(三三)
咸鏡北道明川郡 農業兼貸金業 千秀福(三五)
咸鏡北道吉州郡 (以上住居는延吉縣) 漢藥商 金並七事 金在烈(三六)
咸鏡北道鏡城郡 農業 車漢宇事 車定均(三五)
慶尙北道安東郡 私立大成學校四年生 朴應傑事 朴在政(二二)
咸鏡北道吉州郡 無職 許山俊事 許明九(三○)
咸鏡北道鏡城郡 私立昌新學校教員 崔鳳龍事 崔榮元(三三)
咸鏡北道明川郡 頭道溝朝鮮人民會參議員 千金岩事 千秉舜(二四)
咸鏡北道富寧郡 無職 李殷披、李斉國事 李哲漢(二七)
咸鏡北道鏡城郡 日傭勞働 金成鍔事 車秉桓(二四)
咸鏡北道茂山郡 和龍縣立第六小學校教員 李光事 李時英(二三)
咸鏡南道利原郡 私立龍山學校教員 辛東旭事 辛昌永(二五)
江原道楊口郡 農業 李秉卿事 李衡俊(二四)
咸鏡北道鏡城郡 私立大成中學校二年生 具然樹(二三)
平安南道平壤府 私立大成中學校四年生 金世源事 金成國(二○)
咸鏡北道茂山郡 農業、漢藥商、明信社維新甲下百戶長 許奎錫(二四)
咸鏡北道富寧郡 農業 金 山事 元吉常(二四)
咸鏡北道富寧郡 農業 元明喜(二三)
咸鏡北道富寧郡 農業 元容萬事 元容彥(二五)
咸鏡北道明川郡 農業 洪靑石(三三)
咸鏡北道城津郡 私立廣昇學校教員 張■九(二二)
咸鏡南道永興郡 無職 梁國俊事 梁國來(二五)
咸鏡北道會寧郡 無職 蔡永禮事 蔡秉和(二三)
咸鏡北道城津郡 農業 韓承煥事 韓東宇(二四)
咸鏡北道吉州郡 農業 李乙龍事 李詰洙(二七)
咸鏡北道城津郡 理髮職人 馬東河事 馬今男(二五)
咸鏡北道城津郡 農業 李■事 李承典(二七)
咸鏡北道明川郡 學生 鄭林事 鄭昌松(一八)
咸鏡北道富寧郡 農業 辛仁煥(二四)
咸鏡北道富寧郡 頭道溝朝鮮人民會參議員兼仲坪村長 張南旭(三二)
咸鏡南道洪原郡 農業 金鴻奎事 金漢國(二九)
(住居는全部吉林省)

右昭和五年豫第七六號 金棒 同蘇聖主 同黃珍淵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放火教唆被告金夏益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放火未遂被告金成國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放火被告金在烈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放火未遂 被告金成國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放火 同朴在政 同許明九 同崔燦三 同吳二男 同千秀福 同車輪伯 同車定均 同張龍石 同李詰洙 同辛昌永 同李承典 同韓東宇 同李衡俊 同鄭昌松 同辛仁煥 同張南旭 同梁國來 同蔡秉和 同金漢國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 昭和五年豫第七九號 被告李時英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 被告洪靑石 同李哲漢 同車秉桓 同元吉常 同元明喜 同元容彥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 昭和五年豫第九五號 被告李承典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 昭和五年豫第一○三號 被告千秉舜에對한治安維持法違反各被告事件에對하야 併合審理하야 如左終結決定함

主 文

被告金棒、蘇聖主、黃珍淵、張龍石、千秉舜、車輪伯、崔燦益、車定均、朴在政、許明九、崔榮元、金在烈、李哲漢、金夏益、李時英、洪靑石、許奎錫、辛昌永、元吉常、元明喜、元容彥、李衡俊、具然樹、金成國、吳二男、千秀福、韓東宇、李詰洙、梁國來、蔡秉和、馬今男、鄭昌松、辛仁煥、張南旭、金漢國에對한 本件竝被告李承典에對한 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은 모다 京城地方法院公判에付함

被告鄭昌松、辛仁煥、張南旭、金漢國에對한 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並被告金夏益에對한 放火未遂被告事件은모다免訴함

理 由

第一、朝鮮을我日本帝國의羈絆으로부터離脫케하고 且朝鮮에서私有財産制度를否認하야共産制度를實現할 目的으로秘密結社朝鮮共産黨이 大正十四年四月十七日 京城府黃金町一丁目支那料理店雅敍園에서 金在鳳、曺奉岩、崔元澤等 十五名에依하야 또同樣의目的을가진秘密結社高麗共産青年會가 其翌十八日同府薰井洞四番地朴憲永方에서 朴憲永、權五卨、曺奉岩等十八名에依하야 各各組織됨으로부터 約一年後인大正十五年二月末頃 前記崔元澤은 高麗共産黨中央執行委員會決議에基하야 同人等과 熟議한結果同年四月末頃 崔元澤、曺奉岩、金東明은 支那上海가서 當時同所在住인 金燦、曺奉岩、金東明과 會見하고 朝鮮共産黨의支部를 滿洲에서 設置할任務를 帶하고 同年五月十六日頃 金河球、尹滋英과 함께 吉林省寧古塔沙麻一面披原野에서 朝鮮共産黨의滿洲總局을 設置하고 그本部를 同省寧古塔에둔 同一目的에依하야 朝鮮共産黨의支部로써 滿洲總局의 指令을 受하야 組織을 設置에關한 協議會를 開하야 兹에 朝鮮共産黨滿洲總局을 組織하고 東滿區域에서 其支部를두어 依하야 黨員을 募集하야 그基礎를 굿게해왓다

又 共産青年會에서는 同年秋頃 前記金東明及朴允瑞等에依하야 同一目的에依한 滿洲總局 (滿洲總部라고도稱함)의 組織되어 此亦漸次그基礎를굿게해왓다

그러나 昭和二年十月事件이 發覺되어 幹部等은 或은逮捕되며 或은逃亡하야 그組織기의壞滅에歸하얏다

朝鮮共産黨은 主로 火曜派共産主義者에依하야 組織된 關係上 그中央幹部도 거의同派가 獨占하얏다 大正十四年十一月 所謂新義州事件을 發端으로 其後大衆의 檢擧에 依하야 同黨은 一時解體의 狀態에 陷하얏다 그러나 同年十二月 所謂ML派가 黨을 再建하고 又는 亡命하야 其後 昭和二年春 中央幹部는 相次入黨하야 그 右二月會席에 所謂首領인 安光泉等이 中央幹部에 選出하고 ML派가 黨의 實權을 掌握하얏다

同年十二月 所謂合同大會를 開催하야 朝鮮共産黨中央幹部에 李英、李丙儀、朴榮、洪震、鄭伯等이 選出되어 ML派의 大勢를 차지하게되엇다

其間 火曜派에서는 昭和二年十一月 中支那吉林省에 依하야 東滿區域에 있어서 前記金燦及李東山等이 同派를 團結하야 永久히 合同할 것을 決意하고 金洪善、李又彬、陳建等이 朝鮮共産黨滿洲總局을 再設置하고 責任秘書에 金洪善、組織部長에 金白山、宣傳部長에 石鎭山、韓道等이 就任하고 又前示同一目的에依한 滿洲總局指令에 基하야 所謂同盟支部로서 前示同一目的을가진 高麗共産青年會滿洲總局을 再設置하야 그任務로 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各地의 黨員을 統制하는 任務를 가젓다

神秘의北極에 써나는勇士들【上】
二十二歲의 靑年도 參加
探檢決心하기까지

『윌킨스』대위가一九二九년에 한번 잠수함에 의한 북극잠수 탐검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계획을 발표하자 피가썰는 청년들은 나도나도하고 대위의휘하로 달려들엇스나 최후에는 十九명의 사람이 선발되어 대위와 행동을 가티하기로 되어 북극빙해를 탐험하는 영예를 엇게되엇다

이로부터서는 젊은사람차례로 북극탐험용사들의 전긔를 써보자

『잘、슈넷타』군 (긔관사)이 탐험대의 「배세ㅡ」라고할만한 최년소의 군은 당년 二十二세의청년이다「노틸러스」호의 다른 승조원들은 모다 노련한 선원들임에 반하야 군은 이번이 처음되는데 모험으로서 북극양에 관한것은 책에서 어든 지식밧게는업다

군은 남「카로라이나」주 「찰스돈」출생으로一九一六년 十七세시에 해군에 투신하야 즉시 잠수함 승조원이되엇는데 군은 이것은 천분이엇는지 아는듯 난숙한 잠수함부가 되엇다

『존、알、양손』군 (급유계=給油係)군은 당년 二十三세의 청년이다 군이북극탐험의보도를 엇기는 一九二九년 어떤 해상이엇섯는데 그즉시로 원서를 써서 참가하기를 희망햇다 그러하야 一九三一년四월 허락이되엇다 군은소시부터 모험을 조하해서『루스벨트』긔선회사의 선원이 되엇고 그후 五개년간 미국해군에 종사하게되어 잠수함S四十호승조원이 되어 청도(靑島)에 가 잇섯다 그쌔 중국긔선 대평호가 전복침몰되는쌔에 군은二十여명을 구제하얏다 그용감한 행동은 산동성 독군 (山東省督軍)의 감격한바되어 충찬을바덧다 또一九二八년 일본군이제남에 출병햇슬쌔에 미국 령사관호위병이 되엇섯고 잠수술로도 당당하다 군은『뉴욕』에 약혼한쏫가튼색시가 잇서서『노틸러스』호항행에대한『뉴스』에 떡주의를하고 잇다고 하나 탐험이 성공되는날이면 화촉동방의 결혼식을 일울것이다

『젝크、맘쥬』군 (사주계=司厨係)군은『스이스』산생에서온 당년二十四세의『노틸러스』호 쿠크다 군은 탐험대중제一의 산골뚝이로서 바다와는 인연이 멀지마는 생래의 탐험긔질인 관계로 이번장거에대하야도 깃브게 참가햇다 그러고 군은 탐험을 마친후의 일에대하야 이러케 생각하는모양이다

『나는 일로부터 잠수함선원이 되는구나 또쿠크로도 전문가가 될것이며 유명한『노틸러스』호의 승조원으로서 미국의시민될자격을 어들것이다』

『윌리암、써ㅡ、리쓰』군(영으로활참)군은 부잣집자손이며 또『스보쓰맨』이다 이번 탐험에 쫏참가하려고햇스나 친식중이 심하야 의사의권고로 그만중지하고말엇다

(사진)右양손군左슈넷타군

燈火가房帳에延燒 幼兒三兄弟慘禍
아들 삼형제가 일시에 타죽어
父母의悲痛은目不忍見

【진영】경남 창원군대산면우암리(昌原郡大山面牛岩里)三三번지김성렬(金成烈)(三七)의집에서는 지난二十五일 오전四시경에 모기장에불이부터 一가三형제가 사상(死傷)하얏다는 참극이잇섯다고한다 발화원인은 김청렬의처 려화곡(李花谷)이가 식수(食水)가부족하야 등잔에 불을켜두고 물뜨러간사이에 등잔이너머저서 방장에 불이붓자 겨테두엇든 석유 (石油)병이쏘다저서 두형제의몸에 불이부터슴으로 전긔규호(圭鎬)(六)가고함을지르며 뛰여나오자 사랑에서자든 청렬이가달려가서 갓난아이와 규룡(圭龍)(五)을구한뒤에 불은진화되엇스나 동일밤시에규호가 무참히도 죽어버렷스며 규룡은 그익일인二十六일에 진영철도의원(進永鐵道醫院)에 가서 여러가지로 수당을하얏스나 의사의할수업다는말을 듯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十一시쯤되어서 절명되엇스며 근일에출생한어린것도 아래뜨리에 중상을당하야 방금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이러한참변을당한 그부모의애통하는것은참아볼수가업다

漢江人道橋 改架促進運動

경성부회(京城府會)의원 전중반사랑(田中半四郞)、려승우(李升雨)등이하 二十명은 한강인도교가체촉진(漢江人道橋架替促進)에관한의견서를 작二十六일오후二시부터 경성부회의실에서개최되는 경성부회에 제출하얏다

동의견서는 부회의 협찬을어더 조선총독과 경긔도지사에게 제출할것으로 그요령은 현재 한강인도교는 긔설도로와 얼맛지아니할뿐만 아니라 그넓이와 노피가 넘우도 차이가잇슴으로 큰수리를 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그러고 이번 경인도로(京仁道路)도 개수하게되어 一층현재의 한강인도교를그대로 두어서는 외관상으로 어울리지도안코 또한교통상의커해가심하게된다는것이다 이문제는 일즉 경긔도평의회에서도 만히 론의되든것임으로 불원간에 실현될가능성이충분하다고한다

普成盟休生 暴行事件送局
지방에서도 압송해 오고
十二名은尙今留置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普)의 폭동학생들중 고향에돌아가 잇든 학생들을 소관동대문서에는 요새속속 압송을해오는중인데 二十八일은 충북청주(淸州)로부터 려임경(李壬慶)(二○)을 압송해왓다

그리하야 동사건의관계 학생의 취조는 지금까지 약六十여명이나 햇는데 아즉도 얼마나 더될는지 알수가업다하며 그중 四十五명에대한 폭력행위 위반

在滿農盟員 五名公判開廷
평양복심법원에서 열려
最高二年、最下二年

【평양】정대용(鄭■用)등 五인은 제三반장(第三班長)등을 명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의 복심공판이 廿五일평양지방법원에서 등촌(藤村)재판장 주심석천(石川)검사 관여로 개정되엇다 심리를 맛치고 석천검사는 一심판결대로

▲鄭大用懲役三年、罰金廿圓 ▲黃戰■懲役二年、罰金廿圓 ▲趙東旭▲趙東氏▲金昌植各懲役二年

을 구형하얏다

사건내용은 피고五명은 전부 중국 로령성 류하현(遼寧省柳河縣)에 현주를 두고 조선의사유재산제도를 ○○하고 또일본으로부터 ○○하라는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농민동맹(農民同盟)에 가맹하야 정대용은 제八지부 청년부장(第八支部靑年部長) 조동욱은 소년부장 한재봉은자위대장(自衛隊長)조종 ■■ 등으로 활동하얏고 다시 중국공산당파 유긔적련락을 취하고잇는 농민협회(農民協會)에도가맹하야야항상공산주의를선전하얏다는것과 그곳에서 조선농민에게 못되게구는김화룡(金化龍)을구타하얏다는 사실이라한다 이들의판결언도는 廿七일이다

定平農組員 十餘名檢擧

【진흥】 함흥안 서간의이목을 경동하든 정평농민조합사건(定平農民組合事件)관계자들은 五개월동안이나 정평경찰서(定平署)에 구금되어 엄중한취조를 바더오든바 함흥검사국에서 검사가 출장하야 예비취조를하는 일방 지난十五일부터 四五차에나누어 그조합위원장원희국(元■■)씨외 四十여명을 송국하얏든바 또다시 지난二十일부터 최승일 김병곤 리상원 (崔承一金秉坤李相元)등 十여명을두번에 나누어 송국하고 아직까지 정평경찰서에는 김순교 신례일(金■■申禮一)동수명이 남아잇다고한다

改築落成 平壤鐵賣里 朝鮮料理 元祖 又春館 電話一○五九番

己妻打殺

【단천】지난二十四일 오전九시경에 단천군광천면와동리(端川郡廣泉面瓦洞里)원형도(元亨道)(三七)은 몰연히자긔안해안춘선(安春善)(三七)이가자고잇는것을 곤봉으로 두부를란타하야즉사케하얏다는데 그원인은 아직취조전임으로 확실히 알지못하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원형도는 전에 정신병이 잇섯든자로 어병이 다시발하야 그와가튼행동을하얏는지? 또는 녀자의품행이 단정치못하야 그가 죽이엇는지 모른다고한다 범인은 그날밤에 도망하는것을 체포하야 방금엄중한취조를진행하고잇스며 당서경주의 은 공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얏다

運動競技

第一回中學野球
中央5 培材13A
【優勝戰】

(培材)	打數	得點	安打	犧打	盜壘	三振	四死	刺殺	捕殺	過失
7 正小者	4	2	2	1	0	1	1	0	0	0
8 羅朝華	5	3	2	0	0	0	1	1	0	0
5 金日培	4	1	3	0	0	0	1	3	4	0
1 吳禧煥	5	1	1	0	1	1	0	0	1	0
9 李殷濟	3	2	1	0	2	0	2	3	1	0
3 金仁植	5	0	1	0	0	0	0	12	0	1
4 金松竹	4	1	0	0	0	1	1	2	3	2
6 趙漢鵬	4	1	1	0	0	0	1	2	2	2
2 李命福	3	2	3	1	0	0	1	4	2	0
	37	13	14	2	3	3	8	27	13	5

(中央)	打數	得點	安打	犧打	盜壘	三振	四死	刺殺	捕殺	過失
8 李駿鎔	5	1	1	0	0	0	0	3	0	0
9 朴潤元	5	1	1	0	1	0	0	2	0	0
2 李斗萬	3	0	0	0	0	0	1	3	2	0
8 具誠貞	4	1	0	0	0	1	0	8	0	1
41 李起卿	3	1	0	0	0	0	1	2	2	0
5 趙錦杓	4	1	2	0	1	0	0	0	0	2
7 黃永福	3	0	0	0	0	2	1	0	0	0
6 朴容祥	4	0	0	0	1	1	0	5	4	1
14 李世華	4	0	2	0	0	0	0	1	3	0
	35	5	6	0	3	4	3	24	11	4

【備考】 本壘打(中)李駿鎔、三壘打(培)羅朝華、金日培、二壘打(培)趙漢鵬▲重殺(中)李起卿一朴容祥▲捕逸(中)李斗萬1▲交代(中)六回培材五番打者時에 二壘李世華는投手와交代▲時間 二時間卅一分

警務8A 記者7
森岡局長 送別野球

廿七日午後三時半 上原(球) 小野原(壘)兩審判、記者團先攻으로開始、七回까지 八A對七로警務局勝하얏다

記者團(先)		警務局
21 酒戶	31 打數 31	2 伊藤
158 朴錫胤	8 安打 8	4 森岡
5 渡邊	0 犧打 0	3 立田
2 高須	11 盜壘 11	3 三橋
6 諸岡	5 三振 8	6 高井
4 金東進	2 四死 8	7 安藤
7 李田	5 過失 3	8 田中
8 野崎	2 二打 0	5 八木
63 多田		9 天岸
3 石森		
9 宮村		

得點 記者 5100001=7
得點 警務 412001A=8A

五라운드에 京城軍庭球惜敗

日本關東學生軟球聯盟軍對全京城庭球戰은 廿七日午後三時三十分부터 鮮銀코ー트에서擧行、關東軍은 第一라운드에二組가남고 京城四組아든바 第二라운드부터 關東軍海江田組孤軍奮鬪하야 第五라운드까지入하야決勝하얏다 經過는다음과갓다

【第一라운드】 日本學生 全京城
×(小野・加藤)2―4 殖銀(神野・谷副)○
×(大永・脇井)0―1 鐵道(張元珍・渡邊)○
×(堀富・越田)1―4 殖銀(洪承武・朴龍善)○
○(明間・南宮藤)4―1 商銀(金田・中川)×
×(荒杉・川內)3―4 商銀(島川・劉股相)○
○(海江田・張)4―0 鐵道(長沼・鄭士達)×

【第二라운드】
×(明間・南宮藤)1―4 殖銀(神野・谷副)○
○(海江田・張)4―2 鐵道(張元珍・渡邊)×

【第三라운드】
○(海江田・張)4―2 殖銀(洪承武・朴龍善)×

【第四라운드】
○(海江田・張)4―2 商銀(島川・劉股相)×

【第五라운드】
○(海江田・張)4―1 殖銀(神野・谷副)×

廿九日의運動

▲延專敎職員對同校文科卒業生柔球 (인또어野球) 케임은 明廿九日午後三時十五分 同校庭에서 擧行한다

그날그날

明日 六月二十九日(月曜) 五月十四日(乙卯)
日出前五、一三 沒後七、五八
月出後七、四五 入前三、四九
(滿潮) 仁川前四、三○ 後四、三○
釜山 七、五○ 八、一○
鎭南浦 八、四○ 九、○○

天候

京城 二十九日 曇小雨
二十七日 最低 二一、八
二十七日 最高 二八、四

라디오

【廿九日月曜】 午前一○時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十時四十五分 料理種目 日用品時勢▲正午時報 ニュース▲午後○時二十分 레코드▲二時四十五分 家庭講座▲三時四十五分 ニュース公示事項▲五時四十五分 라디오體操▲六時 家庭講座▲六時半 英語講座▲七時 ニュース公示事項▲七時半 産業▲八時 浪花節▲八時四十五分 室內樂▲九時 講演▲九時四十五分 西洋音樂 歌曲▲九時四十五分 各地天氣 時報▲九時三十五分 氣象槪況 各地天氣

滿場觀衆熱狂裡에 씨름大會決勝戰

再昨二十六日夜盛況裡終幕

一等은咸興玄明鎬君

【평양】 관서체육회 주최본사평양지국 후원의 제一회 전조선 씨름대회제二일은 예정대로 二十六일 오후八시반부터 숭전 체육관에서 개최되엇다 제一일의 계속으로 제四회 전부터 개시하얏는바 최후 결승전에 이르러서는 二천여 관중을 완전히 도취케하얏다 최후의 영예로운 우승은 함흥(咸興) 현명호(玄明鎬)군 二등은 주경삼(朱敬三)군 三등은 순안(順安) 허성(許星)군 四등은 평양 최영삼(崔永三)군이다 오후十시 四十분 최후결승전을 마친다음 회장 조만식(曺晩植)씨로부터 우승배(優勝盃)를 수여하고 부상(副賞)으로 장려금 五十원을 수여한후 二三四등과 등외(等外) 四인에게까지 상품을 수여한후 공전의 대성황리에 오후十一시 산회하얏는데 전적은 다음과 갓다

◇第四回戰 (上은勝者、下는敗者)

李永根(平壤) 李鎭春(平壤)
許 星(順安) 韓有錫(平壤)
玄明鎬(咸興) 栗在郁(平壤)
金東燁(崇中) 金贊命(崇專)
林英燁(平壤) 趙東仁(大同)
朱敬三(平壤) 朴成孝(平壤)
崔永三(平壤) 洪壽福(平壤)
韓甲錫(崇商) 金炳振(平壤)

◇第五回戰

許 星(順安) 李永根(平壤)
玄明鎬(咸興) 金東燁(崇中)
朱敬三(平壤) 林英燁(平壤)
崔永三(平壤) 韓甲錫(崇商)

◇準決勝戰

玄明鎬(咸興) 許 星(順安)
朱敬三(平壤) 崔永三(平壤)

◇決勝

玄明鎬(咸興) 朱敬三(平壤)

受賞者

優勝	玄明鎬
二等	朱敬三
三等	許星
四等	崔永三
等外	李永根
同	金東燁
同	林英燁
同	韓甲錫

普校設立遲延

면민이불평

【영천】 영천군청통면(淸通面)면민들은 면내에 보통학교를 건설코저 긔성회를 조직하야 긔본금을 맨들고저 만흔 활동을 하야오든중 긔본금과 모든준비는 거년도에 다되엇스나 단지 학교 위치 문제로 의론이 만헛스나 그역시 무사히해결되엇슴에도 불구하고 아즉도아모 실현이 업게됨으로 긔성회장 김면장에 대하야 만흔불평을가지고잇다한다

端川牛疫猖獗 斃死五十餘頭

지난二十五일까지 통계

移秧期에農家狼狽

【단천】 함남단천(端川)에는 약 一개월전부터 야우역(野牛疫)이라는 수의학상(獸醫學上)에서보지못한 악질이 발생하야 벌서 죽은 소가 二十여두에 달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 그후 우역(牛疫)이 또발생하야 리중、하다、파도(利中、何多、波道)각면을 필두로 전군에 만연되고잇다 경찰당국에서는 각군으로부터 응원경관 수십명과 수의(獸醫)十九명을 징빙하야 우마왕래를 금지하는동시에 도살(屠殺)까지 금지하고 우역예방에 노력하고잇다 二十五일까지의 통계는 죽은소가 五十여두에 달하고 일반농가에서는 극도로 불안한중 소의외출을엄비한 금지함으로 렴박한 이앙시기에 논을 갈지못하야 더욱소동을 치는판이다

「아모런粗食이라도 밥갑반헐케하오」

그래도한달에보리두섬

大邱農校寄宿舍生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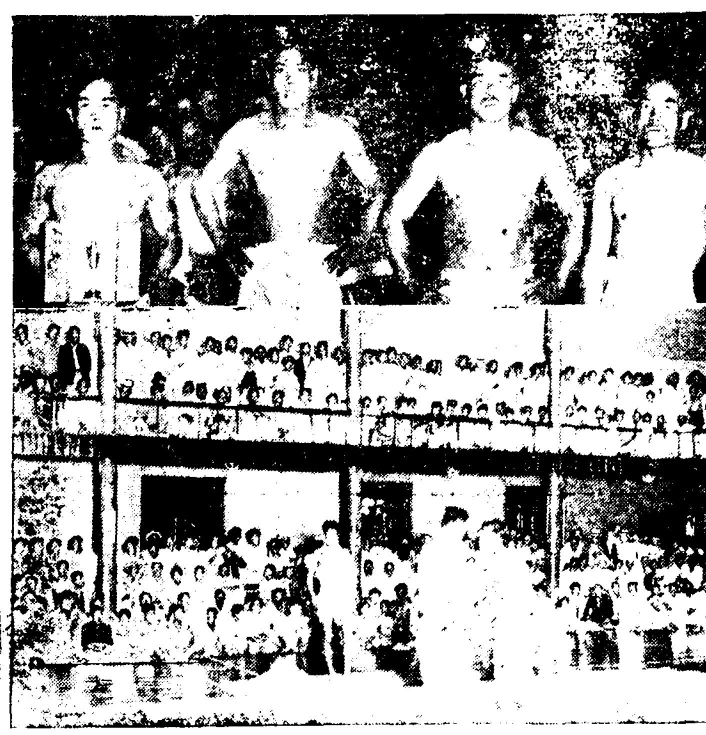
【대구】 학창(學窓)을 압은처 활러업는 심각한불황의 참담한 영향은 농촌자제가만흔 대구농림(農林)학교에 입춘 더한것을 볼수잇다 대맥(大麥)한섬에 三원이내라는 농산물가의 살인적 참락에 곡식팔어 학비대이는농촌의형편임으로 동교 긔숙사생 대부분은 영양(榮養)이나 무어니 차즐여유가잇슬수업슴으로 아모런조식(粗食)이라도 밥갑만 헐케하야달라는 피나는 요구로 요지음은 한달에 六원이하로내려어 다만 량(量)만상당히하야 배를채우게 하야달라고한다 이러하야도 대맥두섬갑을 먹는셈이나 그대로나마 계속만되어 주기를 마음을조리며 바라는바 이라한다

陵洞夜學도 閉鎖를命令

어떤사람의 실언인가?

五十學童含淚彷徨

【신흥】 거금 二十여성상의 긴 역사와 파란곡절을 거듭하야오든 함남 신흥군 가평면 능리(新興郡加平面陵里)에잇는 능동야학당(陵洞夜學堂)은 서당규측(書堂規則)이 변하자 당지유지 리적호(李迪鎬)리처청(李沛城)씨의 명의로 인가를 어더가지고 군내에 유수한 농민교육과 무산아동의 교양을하준허하야 와다는데 지난六월부로 당국에서는 돌연 진과야한당에 폐쇄명령(閉鎖命令)을 내리엇다 인제 폐쇄된골자의 동긔는 본원인은 어떤사람의 실언에서나온것이라 하는데 교문을등지게된 五十여 생도들은 하루하야가며 마음을 방황함미 커다란 교사(校舍)는 길가는사람의 감회를더욱깁게할뿐이라한다



◇平壤씨름大會 上은優勝者(左로부터四等) 下는大會場全景

洪氏送別音樂

명일대구에서

【대구】 홍란파(洪蘭坡)씨도

共同墓地狹搾

넓히고저활동

【라남】 조선인의 공동묘지구역이 협착하야 수년전부터 일반시민간 틈의가 만헛슴으로 새로 당선된 조선인 읍의원(邑議員)들이 이에대한 대책을 읍당국과의론한결과읍당국에서는 금년도 예산에는 편입되지 아니혓슴으로 금년내로 긔지 매수가 어렵지만 래년도에는 과어히 예산에 편입할터이나 위선 시민유지의 의견을 종합하라고 하얏슴으로 읍의원들은 지난二十四일 오후九시부터 라남관북불교회(關北佛敎會)당에서 유지좌담회를열고 래 七월二일에 김병가(金炳奎)씨외 四인과 유인파 읍의원三인이합하야 후보지 三개소를 작정하고 실지답사를하기로 결정하얏다

本報讀者에게 記念盃進呈

七월十五일 현재독자께

大田支局變史記念

【대전】 본사대전지국에서는 지국변경을 의미잇게 긔념하기위하야 애독자는 一인도 유루업시 긔념배를 진정할터인바 규정은 압에와갓다

一、七월十五일현재독자에게독자권을들리고

一、七월二十일본사대전지국에서긔념배와교환함

관할을 하게되엿슴은 아니라일반용악재들의고대가너허청방을에긔케 하는터이며 당야본보독자우며함인권은따로히이쇄하야배부하게되엇다

長陽에火災

【진천】 진천군리월면장양리(鎭川郡梨月面長陽里)四六九번지 조춘화(趙春和)의집에서 지난二十一일오후五시경에발화되어 二간一동이 전소되엇다 그원인은 조춘화의 장녀 순봉(順奉)(三)이가 그부모가 들에나간사이에 불작난을하다가 발화되엿다하며 손해액은 약三十원가량이라한다

柳在星氏免訴

【려수】 원적을률촌면취적리(栗村面吹笛里)에두고 동경중앙대학(中央大學)에서 류학하든 류재성(柳在星)(二三)군은 부산제二상업학교(釜山第二商業學校)동맹휴학당시 호남학우회(湖南學友會)사건협의로 작년十二월二十일경 려수경찰서출구(出口)고검거(出張檢擧)로 려수서를경유하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光州地方法院順天支廳)에서 취조를밧고잇엇다 이래 七개월동안 각방면으로 조사하야보앗스나 별단서를 엇지못하얏슴이 지지난二十四일에면소(免訴)즁 유하야다

十週年勤續

趙得允氏表彰

【평양】 평양숭현녀학교(崇賢女學校)에서는 지난廿七일오후二시에 부내장대현례배당(章臺峴禮拜堂)에서 동교교감 조득윤(趙得允)(四)선생의 근속十주년(勤續十週年)긔념표창식을거행하얏다

＝사진은 조씨＝

趙得允氏略歷

氏의原籍은 黃海道谷山郡花村面인데 일즉이 漢學을만히 修得하얏고 其後에는 平壤崇實中學에서修學하고 故鄕에 돌아가서 十有餘年동안 教育에從事하면서 自修養을거듭하야 私立學校教員의 免許를어더가지고 今十一年前에 平壤崇賢女學校에 奉職하얏다

鹽工主의一切權利를 取引業者가強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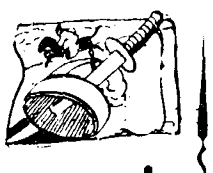
絶對反對코道에陳情

【차호】 一수판매를 긔조로九二나온 가협정(假協定)이 조선총독부와 일본의 대자벌(大資閥)인 三능합동유지(三菱及合同油脂)와 성립된후 불가쪽낙이란 리유로 三능재벌이 계약을 파기하엿다가 다시협정하고 조인하엿슴으로 한남에어업자금이 十七만五천원이 오게되는데 그것을 게지로 재래취인업자(取引業者)인원산(元山)에 삼야(森野)단천(端川)에염경후김수근(金守根)등이공장주(工場主)외一체의권리를강요하고이다 공장주들은 자긔들이 대부하여오는 돈까지도 취인업자의손에 쥐우고 다시멧원식어더다쓸수업스며 공장의 모든 권리를 취인업자에게 주면 자긔들은무엇을 표준하고 사업을 경영할것인가하며 방금 항쟁하는동시에 리원군선(利原群仙)에 잇는 멧사람이 도청(道廳)에 진정(陳情)을 나갓다한다

青年飮毒自殺

비밀탈로로

【후창】 평북도후창읍내(厚昌邑內)채병제(蔡炳濟)(三六)는 지난二十二일오전 여섯시경에 자긔집에서 독약을먹고 신음하는것을 그가족이발견하고 즉시부근병원에 입원시켯스나 효과를보지못하고 당일오전 十一시二十분에 사망하엿는데 그내용을조사한바에의하면 二十二일 석양에 운측동구(雲側洞口)최서인(崔瑞仁)의집에서 로동자들



地方雜信

金浦一者

◇金浦의無不干涉主義者요 아울러『얼굴긴職』을가진 東命監은 東西支局設置의目的은 自己의 郡守를攻擊排斥할 動機로나온것이라고 放言하면서 惡宣傳을 한다나!

◇아마도 自身이 猛省의批判과攻擊을 바들만한 材料가잇는 모양、無瞭한郡守는 왜 서러넛는지 알수업다

◇우리는 感情을超越하야 社會의實相을 如實히報道하며 公正한 批判을 加하랴는것이다

◇令監이여! 너무나 自規치 말고 理解가 잇기를바란다

會合

◎高原郡上山面協議員會 지난十九日同面事務所에서開催

◎平山郡寶山面協議會 七月一日同會議室에서開催

消息

◎洪千吉氏(本社大田支局長) 大田案內版發行의用務로 上京 貫鐵洞一四七番地에 滯留中

◎鄭喜朝氏(農會技手) 務安郡農會任人事次 本報海南支局來訪

平壤에火災 五棟三戶全燒

고물상에서 불이 일어나

損害五千二百餘圓

【평양】 二十六일 오전一시四十분 부내수정(壽町)一四一번지 고물상 금자준길(金子俊吉)의집에서발화하야 五동(棟)三호를 태우고 겨우진화되엇다。 발화원인은 방금 조사중인데 여마츰 바람이불기때문에 一호를전소하고 다시 엽집 김진근(金振根)의집까지 반소케된것이라한다 손해는 五천二백여원 이라한다

長城에火災

蠶室을全燒

【장성】 지난二十三일 오전열두시경에 전남장성군장성면류탕리(長城郡長城面流湯里)김형국(金炯國)잠실에서발화하야 상산주재소에서는 소방대를 출동시켯스나 한발관계로 물이업슴으로 할수업시 동오후三시경에 진화하얏다 손해는 약九백원가량이며 원인은 실화인듯하다고 한다

道路工夫가 絶壁에서墜死

【창성】 창성군 우면의산동(昌城郡牛面義山洞) 장준홍(張俊興)은 생활이 빈곤함으로 도로공사(雲昌線道路工事)에 일당六十전에 팔리어 창성면부청동(昌城面部靑洞)중압벽석간공사(石間工事)를 하다가 지난二十四일 하오四시경 굴르는바위돌과가티 十여길되는 벽에 떠러저 온몸이 여지업시 부서저 무참하게 죽어버렷다고 공사를 마튼 대촌조(大村組)에서는 그시체를 본집으로보내엇다한다

道廳防止者 또二名檢擧

【공주】 충남경찰부(忠南警察部)에서는 도청이전방지운동관계자로 당지문밖구상금서 조선인으로 김긔태(金基泰)량명을 二十五일에 또검속하얏다 리명근(李明根)홍종국(洪宗國)등세명도 석방되엇다

罷業洋服工의 作業部活氣

신용어더 일거리가 밀려

沙里院洋服工盟罷其後

【사리원】 황해도사리원읍(沙里院邑)내의 각양복직공들은 양복직공조합(洋服職工組合)이 양복상조합(洋服商組合)을 상대로 동맹파업을 하얏든바 그후소식을 드건데 멧개소의양복점은 직공과타협을 하고 그남어지 직공들은 여전히 작업부(作業部)에서 작업한다는데 근일에는 공전이 싸고도 재봉과재단법이 극히 견실하고 선명하야 일반의 신용을 밧게되엇슴으로 일감이 태산가티밀려서 일시는 실망하얏든 그들이 지금은 활긔를 띄고 긔초를 든든케하기에 일층노력중이다 당시 검속되엇든 정창헌(鄭昌憲)을 ...

大盜傳 (170)

【後篇】 尹白南 作 漢北居士 畫

十四、회심(會心)(十一)

이때 호일걸은 여럿과함께 란영과 하로인의가족을 보호하며 무룡이 이미 린시의 산채로 떠어노은곳으로 도망하든중에 문득 머리에떠올은것은 무룡의 일이엇다 생각이나고보니 궁금하기 짝이업고 또한편으로생각하면 아무리 그가 재조가잇다할지라도 그혼자를 남겨노코 안연히도망을 하고잇는것이 마음에 부쓰려왓다

『아 여보소 나는 두목에게로 좀 가서보고 올테니 자네들은 먼저가서이게』

호일걸은 이번이에게 이러케 부탁을하고 말한필을 잡아타고 오든길로 몰아서 재쪽을돌엇다 늙엇슬망정 그에게는 아즉도삭풍이 름름한 남은천지에서 허다한위지에 출몰하든용긔가 남어잇섯다 무룡은 인엽이의후실을 들처업고 중위를 버서나라하니

『귀놈 잡어라』

소리가 사면에서 일어나며 최후의긔를 쓰노라 그들은아용쓰며 무룡에게 달려어든다 무룡은 등에업힌사람이 잇기때문에 맘대로 몸을쓰랴하야도 맘대로되지안핫다 마음은 초조하나마 몸은 무거웟다 백수십명의 포졸들은무룡의몸이 자유롭지 못함을알고 에워싸고 함성을내질으며 한결 별안간 용긔가 나서 철퇴가티 한걸음 무룡의신변으로 닥아든다

무룡은 간신히 한편구석에비 이것을보고 아페들어오는 라졸하나를 발人길로차서 거꾸러트려고 그비인구석을들코 빠져나갓다 그래서 초이적 힘을 나라내어 살가터 다라나랴할지옹에 큰돌맹이 하나가 날어와서 그의 압정강이를 첫다 동시에 무룡의 오른편다리는 자유를빌혓다 돌에 마즌 찰나에 오른편무릅이 뜨끔하며니 다음순간에는 한걸음을 옴기어 놀수업시 심술이 씽기엇다 만사가 휴의다 인제는 하는수업시 등에 업힌 게집을 내버리고 자긔한몸의 안전을 꾀하는수밧게 업나보다 이러케생각햇다

그래서 무룡은 그자리에엉거수춤하고 게집을 땅에 나려노으랴할지음에 문득 커편으로서 말굽소리 요란히나며 원나라말로

『이놈들 내칼을 바더라』

하고 호통치는 소리와 함께 와ㅡ하고 사산하야 흐터지는 라졸 포졸들 동에번뜻 서에 번뜻 삼시간에 서너사람 목베어 거꾸러 트려엿다 뜻 아니한 때처이 어떤 동관이 눈아페서 죽어 업드러지는것을본 관졸들은 호홈뜨고 도망하기 시작햇다 그들의 생각에는 뒤를니어수십명의 적도가 쳐 들어오는줄로만 여기엇다 이는 무룡을 구하려 달려어온 호일걸이엇다

일걸은 긔세를 어더 더욱 호통을 치며 무룡에게로 달려 가서

『두목그녀인은 이리 주시오』

하고 등에 업힌 인엽의 후실을 한팔로 안어 올려어 말위에 안치고 곳 말머리를 돌려엇다

『일걸이 자네는 먼저가게 이제는 나는 여긔서 바쳐나갈 수잇스니까』

『비 그럼 한걸음 먼저 갑니다』

일걸은 한쪽손에든 칼을휘둘으며 당고개 알로 날듯이 달려 어 나려갓다

그의 생각에는 무룡의 호목이면 아모렴려가 업슬것을 아는까닭이엇다

무룡은 허리를 펴고 이러서다 그러고 한다리를 끌며 두 어걸음 옹속이니 포졸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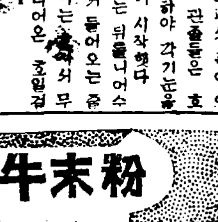
『커놈만 노치지말아』

이러케 외치며 혼자서무룡에게로 달려든다 무룡은 허리를 펴기시작한그 자세로 달려드는 포졸의며살을 붓들엇다 이러하야 무룡과 포졸의두목 둥이는 서로 업치락 뒤치락하기시작하매 여럿은 그긔회를노치지 안흐랑으로 와ㅡ하고달려들어서 답새기를 첫다

乳牛末粉

Glaxo

글 랙 소



母乳代用의理想的 育兒料病弱者의最 優等榮養品産前産 後의超速度回復料

貴家의繁榮은? 乳兒의健全한發育에잇슬것이오

貴下의成功은? 身體가健康하심에잇슬것이외다

本品(글랙소)는久遠한經驗과最新의學理를基礎로하야魚肝油의要素를含有케한것으로、朝鮮에輸入된지아죽、日淺함에不拘하고・참으로놀랠만한賣上高를내고잇슴은・絶對優秀한效力으로愛用諸位의滿足을드리는까닭이외다

定價 一封度入 ¥4.10 二封度入 ¥2.15 半封度入 ¥1.15

京城鍾路二、五八 東洋醫用品商會

잘 꾀 짐으로……

잘 오 름으로……

잘오르고 썰어지지안습니다

입으신옷을 더럽히지안습니다

목돌의아름다움은 우데나固煉으로

人氣의襟白粉

ウテナ 固煉白粉

우 데 나

東京本鄕 久保政吉商店

本日부터 珍戰新婦爭奪 7 ◇妖艶러아되의ㅣ篇 名鼻마루고로무부터氏 共演 ◇원나암꾹쓰會社超特作 巨匠아빙가팡그스氏大作品 어둠에서光明으로 8 主演 에드문드로ㅣ 메리아스라ㅣ 氏 ◇파데인더새쇼녈會社特作 冒險로이드 全卷 主演하롤드로이드 氏 炎暑一蹴의奇聞險奧! 世界的大魔奇術曲藝團 寶旭齊天一 一行 여는듯한마위에災禍을一掃할 間髮奇術曲藝는오 지얻더한大魔奇術曲藝를보섯다 市內 貫鐵洞 優美館 (電話光三九五番)

■六月二十八日부터公演 ◇朝鮮硏劇舍第八回公演 新脚本 料金 階上 大人卅錢 小人卅錢 階下 大人卅錢 小人廿錢 ◇朝鮮硏劇舍脚本部提供 任曙昉作 人情悲劇 눈나리는밤 前編 合唱 全玟希氏 池南順嬢 獨唱 池季順嬢 ◇朝鮮硏劇舍脚本部提供 西洋劇 噫無情 全二幕 尹白南先生脚色 全員出演 ◇朝鮮硏劇舍脚本部提供 故千澳溟先生脚色 歌劇 서울에밤이와이 一幕 全員出演 【滑劇豫告】 七福의妻 못소리니 배다르兄弟 【映畵豫告】 로이도의危險大歡迎(全篇) 의집 教育의波止場 로이드兄弟 朝鮮劇場 仁寺洞(電話光二一八二番)

忠武公遺蹟保存問題로

◇追慕의結晶體誠金遝至

▲一金五十錢也 固城郡固城面 鄭俊奉
▲一金廿二錢也 固城公普校五學年 鄭鐵基
▲一金一圓也 山淸郡山淸面 金和珣
▲一金一圓也 同 金其正
▲一金一圓也 同 閔營鏞
▲一金一圓也 同 崔泰林
▲一金一圓也 同 吳南石
▲一金五十錢也 同 吳致道
▲一金五十錢也 同 朴仁淑
▲一金五十錢也 同 申台弘
▲一金五十錢也 同 趙仁守
▲一金五十錢也 同 閔泳祿
▲一金五十錢也 同 朴起峰
▲一金五十錢也 同 姜渭顯
▲一金五十錢也 同 吳鳳壽
▲一金五十錢也 同 金斗星
▲一金五十錢也 同 方漢守
▲一金五十錢也 同 金炳儀
▲一金五十錢也 同 金壽兆
▲一金三十錢也 同 李昌鉉
▲一金三十錢也 同 無名氏
▲一金三十錢也 同 閔致源
▲一金三十錢也 同 尹學鳳
▲一金三十錢也 同 沈三周
▲一金三十錢也 同 李宗洙
▲一金三十錢也 同 徐孟淳
▲一金三十錢也 同 崔壽億
▲一金二十錢也 同 李斗基
▲一金三十錢也 同 孫萬或
▲一金三十錢也 同 李善出
▲一金二十錢也 同 姜奉碩
▲一金三十錢也 同 李龍學
▲一金三十錢也 同 趙鏞根
▲一金二十錢也 同 裵昌炫
▲一金三十錢也 同 金棫混
▲一金三十錢也 同 李鳳友
▲一金二十錢也 同 金鍾大
▲一金二十錢也 同 朴台變
▲一金二十錢也 同 梁在輪
▲一金二十錢也 同 金成烈
▲一金二十錢也 同 文致永
▲一金二十錢也 同 河或尙
▲一金二十錢也 同 不二染色工廠某職工
▲一金二十錢也 同 禹應安
▲一金二十錢也 同 崔漢用
▲一金二十錢也 同 崔雙甲
▲一金二十錢也 同 權德在
▲一金二十錢也 同 崔萬斗
▲一金二十錢也 同 許宗一
▲一金二十錢也 同 金奉玉
▲一金二十錢也 同 金東敏
▲一金二十錢也 同 金永俊
▲一金二十錢也 同 鄭宰時
▲一金二十錢也 同 柳晋煥
▲一金二十錢也 同 金漢祚
▲一金二十錢也 同 李順完
▲一金一圓也 同 鄭時龍
▲一金五十錢也 同 李相乙
▲一金五十錢也 同 申泰燮
▲一金五十錢也 同 崔五燮
▲一金五十錢也 同 崔鼎燮
▲一金五十錢也 同 崔烈萬
▲一金五十錢也 同 李昌雨
▲一金五十錢也 同 金秉道
▲一金五十錢也 同 李浩聖
▲一金五十錢也 同 朴道水

▲一金五十錢也 同 金鍾玉
▲一金五十錢也 同 鄭尙文
▲一金三十錢也 同 許明奎
▲一金二十錢也 同 河命徹
▲一金二十錢也 同 徐廷實
▲一金二十錢也 同 崔東敏
▲一金二十錢也 同 曺相根
▲一金二十錢也 同 宋準元
▲一金二十錢也 同 河龍國
▲一金三十錢也 同 徐錫圭
▲一金三十錢也 同 姜四喜
▲一金二十錢也 同 崔翼淳
▲一金二十錢也 同 宋琫周
▲一金二十錢也 同 李炳地
▲一金二十錢也 同 吳二鎭
▲一金二十錢也 同 宋琫烈
▲一金十錢也 同 申仁卓
▲一金十錢也 同 王相烈
▲一金一圓也 同 閔致斌
▲一金一圓也 同 金性在
▲一金九十錢也 同 宋湘文
▲一金五十錢也 同 金永俊
▲一金五十錢也 同 李尙根
▲一金三十錢也 同 成洪錫
▲一金二十錢也 同 朴泰龍
▲一金二十錢也 同 宋玉根
▲一金十錢也 同 金昌植
▲一金五十錢也 同 宋重錫
▲一金二十錢也 同 姜文祚
▲一金二十錢也 同 姜文甲
▲一金二十錢也 同 姜鍾赫
▲一金九十錢也 同 姜鑛虎
▲一金二十錢也 同 趙洪來
▲一金十錢也 同 朴泰碩
▲一金十錢也 同 張判九
▲一金十錢也 同 朴熙大
▲一金二十錢也 同 李圭文
▲一金十錢也 同 林吏相
▲一金一圓也 今西面 劉秉鐶
▲一金二十錢也 同 李鍾閏
▲一金二十錢也 同 金貞煥
▲一金一圓也 丹城面 閔泳述
▲一金二十錢也 東黃面 權大煥
▲一金一圓也 山淸寒洞 金宗植

山淸卓球俱樂部
▲一金三十錢也 同 韓寅洙
▲一金十錢也 同 崔相基
▲一金十錢也 同 孫德鎭
▲一金二十錢也 同 朴正基
▲一金二十錢也 同 宋埈鎬
▲一金二十錢也 同 徐光晤
▲一金一圓也 山淸郡廳 崔準基
▲一金五十錢也 東亞日報山淸支局 金烘錫
▲一金一圓五十錢也(各十五錢) 成川東明妓生 李錦珠 張明珠 鄭명히 朴蓮心 李銀珠 金花月 李蓮玉 馬香蘭 李香春 金玉仙
▲一金二十錢也 神戶市三番町 朴章默
▲一金二十錢也 同 鄭用石
▲一金二十錢也 同 金正述
▲一金十錢也 同 金鏞根
▲一金十錢也 同梅香町 李相喆
▲一金二十錢也 同 鄭多物
▲一金十錢也 同 韓璽洙
▲一金二十錢也 同大阪通 朴起龍
▲一金十錢也 同三番町 姜判東
▲一金五十錢也 瑞興郡所沙面 鄭子祿

▲一金五十錢也 同 金行源
▲一金五十錢也 同 林命相
▲一金五十錢也 同 陳鎬大
▲一金二十錢也 同 朴東俊
▲一金二十錢也 同 俞鎭元
▲一金二十錢也 同 玉浩班
▲一金二十錢也 同 金炳俊
▲一金二十錢也 同 申泰淳
▲一金二十錢也 同 宋禮俊
▲一金十錢也 同 丁雲澤
▲一金十錢也 同 朴根一
▲一金十錢也 同 金光成
▲一金十錢也 同 金暎煥
▲一金十錢也 同 都根燮
▲一金二十錢也 同 李太福
▲一金二十錢也 同 玉崗一
▲一金二十錢也 同 俞斗涉
▲一金五十錢也 同 全仁善
▲一金二十錢也 同 宋泰淳
右鄭子祿以下十九人分五圓三十錢中送料二十錢除하니實入金五圓十錢
▲一金五十錢也 陰城郡三成面 李宗熙
▲一金五十錢也 同 許萬亨
▲一金三十錢也 同 金默成
▲一金二十錢也 同 朴貞勳
▲一金二十錢也 槐川廣惠院里 金昌雲
▲一金十錢也 同 朴貞淑
▲一金十錢也 同 李文肆
▲一金五十錢也 同 徐禹範
▲一金十錢也 同 徐鏞泰
▲一金十錢也 同 徐鏞震
▲一金十錢也 同 金東煜
右李宗熙以下十人分二圓七十錢中送料十八錢除하니實入金二圓五十二錢
▲一金五十錢也 昌城郡青山市 李春三
▲一金二十錢也 同 姜秉洙
▲一金十錢也 同 양[illegible]
▲一金二十錢也 同 姜鎔禧
▲一金十錢也 同 撚虎生
▲一金十錢也 同 申漢均
▲一金十錢也 同 方鳳翼
▲一金十錢也 同 方國成
▲一金五錢也 同 方國昜
▲一金五錢也 同 方鳳祥
▲一金五錢也 同 李鳳梧
▲一金五錢也 同 姜世德
▲一金十錢也 同 康秉一
▲一金十錢也 同 柳秉弼
▲一金十錢也 同 姜海東
▲一金十錢也 同 金濟弘
▲一金十錢也 同 金明學
▲一金十錢也 同 金弘肯
▲一金二十錢也 同 金成守
▲一金十錢也 同 金碩道
▲一金十錢也 同 姜泳龍
▲一金二十錢也 同 鮮于應八
▲一金十錢也 同 鮮于永完
▲一金十錢也 同 崔洪燁
▲一金十錢也 同 尹永浩
▲一金十錢也 同 姜昌承
▲一金十錢也 同 姜昌律
▲一金十錢也 同 鮮于鳳
▲一金十錢也 同 白善燦
▲一金五十錢也 碧潼郡松西面 崔俊模
右李春三以下二十九人分四圓中送料十八錢除하니實入金三圓八十二錢
▲一金一圓九十四錢也 開城 開城學堂生徒一同
▲一金五圓也 開城府京町東亞石鹼工場 林漢祖
▲一金三圓也 同 秦敎淳
▲一金二圓五十錢也 同 李根洙
▲一金十錢也 同 林漢靑
▲一金十錢也 同 金孝鍾
▲一金十錢也 同 梁天植
▲一金十錢也 同 金昌善
▲一金十錢也 同 金日成
▲一金四圓二十錢也 大阪市住吉區 浪速中學校朝鮮留學生一同

▲一金一圓也 同 李錫奎
▲一金一圓也 洪川邑 金永吉
▲一金五十錢也 長淵達堂浴 申炫昊
▲一金一圓也 南海雪川 尹道淸
▲一金一圓也 同 李相君
▲一金五十錢也 同 李基勝
▲一金五十錢也 同 尹柱善
▲一金十錢也 同 李燦德
▲一金五十錢也 同 金南祚
▲一金一圓也 同 柳根烈
▲一金二十錢也 同 金敏熙
▲一金二十錢也 同 徐泰玉
▲一金五十錢也 同 金鍾學
▲一金一圓也 同 尹永準
▲一金十錢也 同 金尙俊
▲一金一圓也 同 河昌洙
▲一金一圓也 淸州慕聖會 李東洙
▲一金五十錢也 同 金壯煥
▲一金五十錢也 同 金喆煥
▲一金五十錢也 同 李鎬喆
▲一金五十錢也 同 金京植
▲一金五十錢也 同 崔在玄
▲一金五十錢也 同 金商俊
▲一金五十錢也 同 金東勳
▲一金五十錢也 同 張聖煥
▲一金五十錢也 同 許成日
▲一金五十錢也 同 郭永鍾
▲一金三十錢也 同 洪鳳變
▲一金十錢也 仁川外里 無名氏
▲一金二十錢也 同 徐丙周
▲一金二十錢也 同 李慶成
▲一金二十錢也 同 金順鎭
▲一金五十錢也 同 延業同盟汽船部仁川支部
▲一金五十錢也 同大阪海上火災保險仁川代理店 洪元杓
▲一金五十錢也 仁川港 順吉丸朝鮮人乘組員一同
▲一金十錢也 平壤月星洋襪工廠從業員 林成杰
▲一金十錢也 同 吳萬福
▲一金十錢也 同 金永文
▲一金十錢也 同 金鳳麟
▲一金十錢也 同 辛明德
▲一金十錢也 同 朴龍善
▲一金十錢也 同 柳東默
▲一金十錢也 同 韓星學
▲一金十錢也 同 辛亨旭
▲一金十錢也 同 李禮燦
▲一金十錢也 同 方炳鎔
▲一金十錢也 同 金昌模
▲一金十錢也 同 辛龍植
▲一金二十錢也 同 辛亨虎
▲一金二十錢也 同 金龍俊
▲一金二十錢也 同 吳福實
▲一金二十錢也 同 辛贊憲
▲一金二十錢也 同 朴奎鉉
▲一金二十錢也 同 金炳漢
▲一金二十錢也 同 朴貞烈
▲一金二十錢也 同 韓春熙
▲一金二十錢也 同 魚命濂
▲一金二十錢也 同 金炳烈
▲一金二十錢也 同 吉在淑
▲一金二十錢也 同 李永華
▲一金一圓也 慶北倭館魚市場 李茂林
▲一金五十錢也 同 鄭鍾祥
▲一金十錢也 同 裵漢國
▲一金二十錢也 同 鄭士成
▲一金十錢也 同 鄭壽岩
▲一金十錢也 同 朴墅道
▲一金十五錢也 同 裵三鳳
▲一金十錢也 同 尹敬文
▲一金五十錢也 同 李明玉
▲一金二十錢也 同 文成鎬

▲一金十錢也 同 羅泰三
▲一金十錢也 同 金鎔萬
▲一金十錢也 同 李容錫
▲一金十錢也 同 張炳三
▲一金三十錢也 同 玄佑相
▲一金十錢也 同 朴慶五
▲一金十錢也 同 尹敬默
▲一金五錢也 同 吳丁龍
▲一金五錢也 同 申仁善
▲一金五錢也 同 金聖根
▲一金二十錢也 同 金永洙
▲一金二十錢也 同 李壽和
▲一金十錢也 同 柳仁翊
▲一金十五錢也 同 金聲振
▲一金十錢也 同 蘇致和
▲一金十錢也 同 李榮植
▲一金三圓也 同 慶尙合同銀行倭館支店行員一同
▲一金十錢也 漆谷郡倭館面 姜鎬文
▲一金一圓也 同大邱理髮館 李賀壽
▲一金五十錢也 漆谷郡石積面 張敏植
▲一金三十錢也 公州邑內 柳靖浩
▲一金二十錢也 同 趙重國
▲一金二十錢也 同 李載誠
▲一金十錢也 同 閔龍植
▲一金十錢也 同 洪淳璀
▲一金二十錢也 同 鍾信理髮館
▲一金二十錢也 同 朱柄乾
▲一金十錢也 同 尹容學
▲一金五錢也 同 元元鳳
▲一金五錢也 同 朱甲魯
▲一金五錢也 同 朱乙魯
▲一金五錢也 同 朱丁魯
▲一金五錢也 同 朱貞玉
▲一金五錢也 同 沈載祐
▲一金五錢也 同 沈載駿
▲一金五錢也 同 鄭鎭雨
▲一金五錢也 同 鄭鎭淑
▲一金七圓也 大邱南山町 大邱信明學校職員一同
▲一金六圓六十錢也 同 生徒一同
▲一金一圓也 同 申自如
▲一金二圓也 大邱 李英勉
▲一金一圓也 同 金銀堂
▲一金十錢也 同 成漢祚
▲一金五十錢也 同郵便局電話係 文聖開
▲一金五十錢也 同 卜箕一
▲一金二十錢也 同 卜箕珠
▲一金三十錢也 同 趙棟元
▲一金二十錢也 同 鄭在玉
▲一金十錢也 同 鄭彦七
▲一金二十錢也 同 柳善奎
▲一金二十錢也 同 徐丙泰
▲一金三十錢也 同 徐聖均
▲一金二十錢也 同 徐奉均
▲一金二十錢也 同 徐榮均
▲一金三圓八十錢也 同 大邱高普校四年生
▲一金五十錢也 同日成裁縫所 李泰鎭
▲一金一圓也 京城仁王山下 三啞
▲一金二十錢也 高陽郡恩平面碌磻里 皮用八
▲一金十圓也 京城樂園洞 講武館一同
▲一金五十錢也 京城孝子洞 金永達
▲一金二十錢也 同 金英鎭
▲一金二十錢也 同 李泰鎔
▲一金二十錢也 同 鄭錫基
▲一金十錢也 同 黃弘準
▲一金十錢也 同 張德成
▲一金十錢也 同中林洞一九 蔡命龍
▲一金一圓也 昌原郡鎭北面 千鳳周
▲一金一圓也 同 千鳳秀
▲一金三十錢也 同 千鳳文
▲一金二十錢也 同 千鳳權
▲一金十五錢也 同 千鳳碩
▲一金三十錢也 同 千相五
▲一金十錢也 同 千豪炳

保存會收入金

(六月廿七日分)

(事務所京城水標町四十二朝鮮教育協會內)

▲一金三十錢也 同 千奎炳
▲一金十錢也 同 千在炳
▲一金十五錢也 同 千輝炳
▲一金十錢也 同 千斗炳
▲一金十錢也 同 千英字
▲一金一圓也 同 千鎬權
▲一金一圓也 同鶴田面 鄭爀煥
▲一金五圓廿六錢也 京城電車課內掃除夫有志一同
▲一金一圓也 京城郡外鐵道株式會社 慶衡[illegible]
▲一金六十錢也 同 洪淳玹
▲一金五十錢也 同 朴福成
▲一金五十錢也 同 李潤宰
▲一金五十錢也 同 河奉吉
▲一金五十錢也 同 崔祐烈
▲一金二十錢也 同 金商旭
▲一金二十錢也 同 李允鎰
▲一金二十錢也 同 趙晳山
▲一金二十錢也 同 李奇男
▲一金二十錢也 同 崔昌根
▲一金二十錢也 同 吳鎬三
▲一金二十錢也 同 李大成
▲一金十錢也 同 金用男
▲一金二十錢也 京城梨花洞 宋石崇
▲一金十錢也 馬山府內 景林
▲一金十錢也 同 桂仙
▲一金六十錢也 洪川郡斗村面 趙性潮

今日計 一百六十二圓八十六錢也

累計 一萬一千四十九圓七十七錢也

▲一金五圓也 京城帝國大學豫科二學年 朝鮮人學生一同
▲一金二圓也 京城御水洞 李秉煥
▲一金一圓四十錢也 咸南永興邑 鎭西公立普通學校六學年一同
▲一金十錢也 咸南永興郡 朱壎
▲一金五十錢也 京城昌信洞 李氣浩
▲一金五圓也 全南務安郡石津面社倉里 羅州金氏宗中 金禹明 金琦煥 金禹植
▲一金三圓也 開城府松都光武館 金鍾勳
▲一金二圓也 同 尹永善
▲一金二圓也 同 全祉
▲一金二圓也 同 金弘植
▲一金一圓也 同 金鍾圭
▲一金一圓也 同 李華新
▲一金一圓也 同 崔垰浩
▲一金一圓也 同 金東俊
▲一金五十錢也 同 金昌成
▲一金五十錢也 同 崔圭淳
▲一金五十錢也 同 安淳元
▲一金五十錢也 同 白在基
▲一金五十錢也 同 安慶燦
▲一金五十錢也 同 朴維鎭
▲一金五十錢也 同 金興植
▲一金九十錢也 同 方聰鉉
▲一金五十錢也 同 秦柄俊
▲一金九十錢也 同 金雄烈
▲一金三十錢也 同 趙東宣
▲一金三十錢也 同 李陽植
▲一金三十錢也 同 李秉俑
▲一金三十錢也 同 金斗勳
▲一金二十錢也 同 金海晩
▲一金二十錢也 同 李海俊
▲一金二十錢也 同 文祿
▲一金二十錢也 同 李培根

今日計 三十四圓也

累計 一千五百三十九圓八十四錢也

總計 一萬二千五百八十九圓六十一錢也

ClibPDF - www.fastio.com